
제10차 OECD 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2013.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목 차

I. 제10차 OECD 통계위원회

1. 개 요	1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2
3. 주요활동	3
(1) OECD 통계위원회 본회의	3
(2) 국제통계협력 활동	6
(3) 관찰 및 평가	7
4. 기타 참고사항	8
(1) OECD 통계위원회 출장관련 청장님 기고문	8
(2) 참가사진 및 유엔본부 안내지도	9
(3) 주요 접촉인사 명함모음	10
(4) 2013년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명단	1
(3) 주요 면담인사 약력	12

II. 제61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1. 개 요	16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17
3. 주요논의 내용	19

III. HLG 회의

1. 개 요	33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33
3. 주요논의 내용	34

※ 별도첨부

1. 제10차 OECD 통계위원회 참가자 리스트
2. 제61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참가자 리스트
3. HLG 회의 결과보고서 [영문]

1. 개 요

(1) 회의명 : 제10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

(10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2) 참가목적

- OECD 통계위원회(CSTAT) 본회의 및 의장단(Bureau)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의제 적극 대응 및 한국의 입장 표명
 - 우리청이 OECD 통계위원회 부의장국으로서,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현안을 주도
- OECD 통계국장과 Bilateral Meeting을 개최하고 한국의 자료제공 평가 및 SDMX 국제회의 공조개최('14)를 위한 관련사안 등 논의
- 네덜란드, 호주, 유로스탯 등 세계 주요국가 통계청장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국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공조 사업 등을 모색

(3) 회의장소 및 회의기간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Palais des Nations, Geneva)
- 회의기간 : '13. 6. 12(수) ~ 6. 13(목)/ * HLG 회의 : 6. 14.(금)

(4)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 의장 : 질 매슨(영국)
- 부의장 : 박형수(한국), 에두아르도 소조(멕시코)

(5) 한국 대표단

- 단장: 박형수 통계청장
- 단원: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인숙과장, 서경숙사무관, 황수린주무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인규부국장

※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제61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6.10~12)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일자	시간	Item	의 제	문서번호
6.12 (수)	14:30-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aft Agenda 승인 및 의장단 소개 ▪ 전년도 회의록 	STD/CSTAT/A(2013)1 STD/CSTAT/M(2012)1/REV1
	15:00- 15: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통계국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각료이사회 회의 결과보고 - 2013-2014년도 사업 프로그램 이행계획 - 2011-2012년도 사업의 최종보고서 	STD/CSTAT/RD(2013)1 STD/CSTAT(2013)1
	15:30- 17: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및 경쟁력 지표 	STD/CSTAT(2013)2 STD/CSTAT/RD(2013)2 STD/CSTAT/RD(2013)3
	17:00- 17:3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의 측정 	STD/CSTAT(2013)3
6.13 (목)	09:30- 11:00	5	【 Confidential Ses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TAT 심층평가 및 개정된 임무 	STD/CSTAT(2013)4 C(2013)18 C(2013)18/CORR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글로벌 관계 전략 	STD/CSTAT(20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가입 	STD/CSTAT/ACS(2012)3/REV1
	11:00- 11:15		<i>Coffee Break</i>	
	11:15- 12:3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경제자원 측정 	STD/CSTAT(2013)6
	12:30- 14:30		<i>Lunch Break</i>	
	14:30- 15:3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 지표 및 SEEA의 Follow Up 	STD/CSTAT(2013)7
	15:30- 16:3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공 : 개방성, 접근성 및 무료 	STD/CSTAT(2013)8
	16:30- 17:3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공 및 기타 사항 ▪ 자료제공 개선 및 협력 관련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MX 개발 업데이트 - OECD 품질검토 리뷰 - SIS 협력 - 신규 OECD 자료수집 포털 	STD/CSTAT/RD(2013)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SNA 이행 관련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보고 - ISWGNA 개선 - 국제기구간의 자료 공유 - IAG 개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타 		

3. 주요활동

(1) OECD 통계위원회 본회의 ('13. 6. 12 ~ 13.)

① [생산성 및 경쟁력지표]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쟁력 회복 측정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단위노동비용, 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등 경쟁력 지표에 관한 통계의 개선방안을 논의

- 국가간 노동시간 측정의 일치성 및 범위 향상과 관련하여, OECD는 연간 국민계정 DB(SNA)와 경제활동별 DB(STAN)를 이용하여 Productivity Database(PDB)를 구축하였으나, 노동시간통계 작성시 국가간 서로 다른 기초자료 사용에 따른 포괄범위 등 일관성의 결여, 이로 인한 경쟁력 지표에의 부정적 영향 및 정책적 해석상의 편의(bias)가 발생
- 따라서 위원회는 고용노동사회국과 공조하여 노동시간 자료에 대해
i) OECD 발간자료의 일관성 검증 ii) 회원국이 제출한 노동시간 자료 수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노동시간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 생산성측정-국민계정 작성과정 통합의 장단점, 2009 OECD-Eurostat survey 업데이트 등 과제를 논의함
- 한편, 총요소생산성(MFP)은 기술진보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성장에서 노동투입과 자본서비스 투입을 차감한 잔여항목으로 산출되므로, 노동과 자본서비스의 측정방법에 따라 MFP 작성결과와 해석이 달라져 정교성 제고가 요구됨
- 1995~20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MFP가 노동생산성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간 노동투입 자료의 이질성으로 노동투입의 질/구성의 조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 근로경험, 나이 등 개인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 등 미시자료 활용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요구됨

② [사회자본 측정]

사회자본과 관련한 스티글리츠위원회의 개발 권고, OECD의 “How's Life?” 프레임워크, 웰빙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인 사회자본 측정프로젝트의 진전사항을 논의

- 사회자본의 4가지 핵심요소인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시민참여, 신뢰와 협력적 규범 중, 현재 가장 개발이 필요한 '신뢰와 협력적 규범'에 대해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DB 구축과 통계인,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계획함

③ [CSTAT의 심화평가 및 임무 개정]

'12년 OECD 평가위원회가 수행한 CSTAT 심화평가에서 관련성(회원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CSTAT의 반응도), 효과성(CSTAT 활동의 회원국 정책에 대한 기여도), 효율성(CSTAT 조직 및 운영)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보고받고, 동 평가결과를 반영한 CSTAT의 Mandate 개정(특히, OECD 다른 위원회가 수행하는 통계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강화), BIICS 등 비회원국 대상 활동 확대 등 권고안 이행에 대해 토의함

- 평가위원회가 권고한 CSTAT의 명칭변경(통계위원회→통계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의장단회의('13.6.11)에서도 이견이 많아 회원국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함

※ 평가위원회는 CSTAT이 OECD 회원국의 정책자문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위한 보다 확대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통계정책위원회'(Statistical Policy Committee)로 이름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CSTAT 산하 4개 소속기구(국민계정작업반, 재화서비스무역통계작업반, 마이크로데이터 전문가그룹, SDMX 전문가그룹)는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

④ [러시아의 회원국 가입 검토]

위원회는 ‘12년 러시아 통계시스템 검토 보고서에 이어 2차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상정하고 러시아대표가 참석하여 OECD 회원국 대표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진 후, 회원국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 제출할 공식의견(Formal Opinion)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함

- 여러 회원국이 러시아통계청의 그간 법적·제도적 정비, 타 작성기관과의 조정역할 증대, 통계의 양과 질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통계청의 통계작성상의 실제적 독립성, 자료제공의 투명성, 다양한 통계 분야의 국제기준 충족 미흡 등 미해결 내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을 지적한 반면,
- 일부 회원국(캐나다, 오스트리아)은 후보국에 너무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하는데 대한 부담과 OECD 진입후 지속 개선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러시아 통계법(번역본)을 입수하여 상기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시킨 후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제안함

⑤ [가구의 경제자원 측정]

위원회는 가계부문 분배지표 연구와 관련하여,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연계하고 국민계정 가계부문을 세분화함으로써 가구의 불평등 측정 방법론을 개발해온 EGDNA*의 성과와 향후 지속적 활동 필요성을 토의하고, 후속작업으로 가계 소득, 소비, 자산의 세분화 작업의 시계열 확장을 제시함

* EDGNA: 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the National Accounts Framework

- 또한 EGICW(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미시통계 전문가그룹)의 가구의 경제자원 측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활동결과와 동 그룹에 가구자산통계를 주로 작성하는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

(2) 국제통계협력 활동

- [OECD 통계국장(Martine Durand)과 오찬간담회] 박형수 대표단장은 OECD 통계국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 자료제공 평가 및 2014 SDMX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함
 - 대표단장이 한국의 분산형 통계작성체계 하에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부처가 OECD에 제공하는 통계의 질에 대한 OECD측의 평가를 요청한 데 대해,
 - OECD 통계국장은 한국 통계의 품질은 시의성, 정확성, 접근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우리측이 특정 분야를 정해주면 심층리뷰를 시행할 수 있음을 언급
 - OECD 통계국장은 차기 제11차 OECD 통계위원회(‘14.4월, 파리) 개최시 한국 통계청장이 OECD 통계국을 방문토록 초청하면서, OECD 통계업무 소개 및 한국의 제공통계 품질 평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함
 - 또한 우리측은 2014 SDMX 국제회의 공동개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양측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OECD측은 한국 통계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사무국 인력파견을 요청함
- [EU통계처장(Walter Radermacher)과 회의] 양측은 통계협력 MOU 체결(2010) 이후 매우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측 인력 파견, 심층분석통계 공동발간 등 협력 현안을 논의함
 - 인력파견 건은 일정상 당초 계획대로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책임자를 선발, 파견할 것임을 언급
 - 또한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생멸통계를 주제로 한 "심층분석통계(Statistics in Focus)" 발간을 통해 작성대상, 작성기법, 국제비교성 측면에서 개선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3) 관찰 및 평가

- OECD 통계위원회는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과 국제기구 통계부서장들이 국제통계시스템이 나아갈 주요 방향과 이슈, 아젠다별 실천 방향 수립 및 이행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임
- 아국은 CSTAT이 추진하는 선진적 통계아젠다의 동향과 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에 피드백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생산성과 경쟁력 지표 작성은 노동투입 자료의 국가간 이질성 해소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기관(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의 공동작업이 필요함

(4) 회의 관련 사이트

- <http://www.oecd.int> (OECD 내부망(OLIS))

1. 개 요

(1) 회의명

- 제61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61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 회의장소 및 회의기간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 회의기간 : '13. 6. 10(월) ~ 6. 12(수)

(3) 의장단

- 의장 : E. 지오바니니(이탈리아 통계청장)
- 부의장 : 이레나 크리츠만(슬로베니아 통계청장), O. 오솔렌코(우크라이나 통계청장) 등

(4) 참가목적

- 한국은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선진 유럽 국가에서 논의되는 통계 관련 최신 이슈와 정보를 파악, 통계청 발전 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5) 참가규모 : 56개국*, 166명

- * 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2. 회의의제 및 프로그램

Item	시간	주 제	회의의제
6. 10 (월)			
1	09:30-09:40	▪ 개회사 및 아젠더 채택	
2	09:40-09:50	▪ 2013년 UN경제위원회에서 CES에 제기한 문제들	
3	09:50-17:30	▪ SEEA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Rio+20 후속조치	
		- (3a) Session I :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llow up to Rio+20	CES/21
			CES/22
			CES/26
		- (3b) Session II : Key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S/23
		CES/25	
6. 11 (화)			
4	09:30-16:30	▪ 연구목적의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과제	
		- (4a) Session I : Drivers for micro-data access	CES/27
			CES/28
		- (4a) Session II : How shoul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respond - moving from risk avoidance to risk management	CES/29
			CES/30
		CES/31	
5	16:30-17:30	▪ HLG (통계생산 및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 작업	CES/2
			CES/20

Item	시간	주 제	회의의제	
6. 12 (수)				
6	09:30-11:00	▪ 보고서,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 회의준비 사항		
		- (6a)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에 관한 개념프레임워크 및 제안된 지표	CES/4 CES/4/Add.1	
		- (6b) 인적자본 측정에 관한 보고	CES/5 CES/5/Add.1 CES/5/Add.2	
		- (6c) 생활시간조사 가이드라인	CES/6 CES/6/Add.1 CES/6/Add.2	
7	11:00-11:35	▪ UNECE 지역 내 국제통계사업 조정		
		- (7a) 빈곤통계	CES/7 CES/7/Add.1	
		- (7b) 금융 및 보험, 재무통계	CES/8 CES/8/Add.1	
		- (7b) 고령화 통계 등	CES/9 CES/9/Add.1	
		- (7b) 사회봉사 등 정치 및 기타 공동체 활동	CES/10 CES/10/Add.1	
		- (7c) 공식통계의 근본 원리		
8	11:35-11:55	▪ 2014-2015년 UN경제위원회 통계프로그램 보고 및 승인		
		- (8a) 2013 UNECE 통계 프로그램	CES/14	
		- (8a) 2012 UNECE 통계 프로그램 이행	CES/18 CES/18/Add.1	
		- (8a) 기후 변화 관련 통계의 향후 방향	CES/11 CES/11/Add.1	
		- (8a) 인적 자원 관리 관련 모범사례 추적	CES/12	
		- (8b) 2014-2015년 UN경제위원회 통계 사업 프로그램(안)	CES/15	
		- (8b) 2014-2015년 UN경제위원회 공표 프로그램(안)	CES/16	
		- (8b) 2014-2015년 UN경제위원회 격년제 평가 계획(안)	CES/17	
9	11:55-12:05	▪ 2014년 개최될 세미나를 위한 의제 채택	CES/13	
10	12:05-12:15	▪ CES 의장단 선출	CES/19	
11	12:15-12:30	▪ 기타		
12		▪ 폐회		

3. 주요 논의 내용

□ 신규 CES 의장단 선출

- 의장 : 캐나다 통계청장
- (UNECE 지역 : 6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
- (UNECE 외 지역 : 2개국) 호주, 멕시코

□ 주요 의제 및 결론

- (1) 3a #21: Rio+ 20 후속조치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llow up to Rio+ 20 and implementing the SEEA)
 - 개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정립된 상태이지만, 세계화의 여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이상 개별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움
 - Rio+ 20 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에 대한 역량 강화는 향후 프레임워크 이행시 반드시 필요
 - 균형 잡히고 품질이 보장된 지표세트 생산을 위해 분야별 관점에서 각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통계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며, 유엔 통계위원회가 이러한 조직을 맡을 것을 권장
 - Rio+ 20 회의와 관련, 국제사회는 가능한 2013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세트에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 전략 또는 웰빙 지표 선정 경험으로부터 글로벌 프로세스를 도출해 내는 것은 어려우나, 몇 가지 일반적인 견해는 얻을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혹은 웰빙 지표 선정시 정치 및 통계사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 정치인은 주로 사업 결정 및 표준에 대한 정의, 개발 및 개선의 책임을 가지는 한편, 통계인은 방법론적 자문, 자료 제공 및 품질 보장, 지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분석 및 공표 등의 임무를 맡게 됨

- 수행 과정에서, 정치 및 통계 사회는 서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하여야 하며, 통계인을 프로세스에 최대한 빨리 참여시키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됨
- 통계사회는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공식 통계의 전제조건이자 정치사회에 대한 신뢰도 및 지속가능성 전략에도 기여하는 것임
- 지표 개발 시, 목표치를 사용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함께 제시하되, 평가절차는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그 결과와 함께 전달되어야 함

(2) 3b #25: 네덜란드의 SEEA 핵심틀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ntral Framework in the Netherlands)

- 네덜란드통계청은 SEEA의 대부분을 이행하였으며, 특히 물리적 흐름 및 환경활동 계정 작성에 집중하였음
 - 네덜란드는 비교적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이 적으므로 자산계정 구축은 많이 되지 않은 편임
- 네덜란드는 SEEA 이행과정에서 3개의 핵심 요인을 파악
 - 환경계정 부분과 관련한 Eurostat의 작업은 여러 핵심 계정 구축에 매우 중요
 - 네덜란드의 특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일부 계정 구축을 견인
 -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사업은 배출허가 및 탄소이력 등에 대한 다른 추가 계정의 구축으로 연계되어, 이들 자료는 바로 정책입안자, 민간 기업 및 일반 대중에 의해 활용됨

Decision 2 (어젠다 3) : Challenges i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llow-up to Rio+ 20 and implementing the SEEA

▶ 회원국은 다음 조치 사항에 동의

- (a) 지속가능발전 측정 관련 통계인과 정치인간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관한 오픈 워킹 그룹*’ 및 ‘UNSC 발전 측정 확장을 위한 의장단**’ 등의 활용가능한 기회를 이용

* UN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SC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broader measures of progress

- (b) 지속가능발전 측정을 위한 UNECE/Eurostat/OECD TF의 권고안에 근거하여 이행전략을 준비하고, 권고안 이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c) Task Force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글로벌 영역(dimension) 및 국가간 영향력에 대한 측정 방법론 연구를 지속

- (d) 국가 및 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SEEA 이행을 위해 거버넌스 및 지원 강화

- (e) 전자회의(electronic forum) 등 SEEA 이행 경험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즘 개발

- (f) SEEA 핵심틀을 기타 UN 공식언어로 번역

▶ 회원국은 사무국 및 CES 의장단에게 동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팔로우업하도록 요청하고, CES 의장단은 차기 미팅에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함

(3) 4a #27: 마이크로데이터 공유 및 오픈데이터, 투명성에 따른 과제
(Micro-data exchange and the challenges of Open Data and transparency)

- 국가통계기관은 오픈데이터 연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자료 보관소, 데이터 연구소 및 원격접근시설 등을 구축함
 - 그러나 일반 국민 및 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오픈데이터의 익명화 및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표준화 개발 작업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공식통계 작성기관은 오픈데이터 익명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연구소, 원격접근시설, 과학적 용도 파일, 공용 파일, 오픈 데이터 제품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고려
- 향후 필요한 작업으로 다음을 제안
 - 국가통계청에서 오픈데이터 표준 도입
 - information asset registers에 오픈 마이크로데이터 항목을 추가
 - 오픈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방법론 개발 비용 분담
 - 기존의 아키텍처가 적절치 못할 경우 오픈마이크로데이터 보급 채널 대안 검토
 - 익명화 표준 및 개인정보 개념에 대해 국가데이터보호 책임자와 유기적으로 협력 등

(4) 4a #28: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micro-data access)

- 2011년 6월, OECD는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협력 공조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였음
 - * 참여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25개국임
 - 연구자 관점에서 본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의 어려움과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연구의 가치 및 정책수립 개선에 대한 기여 등을 논의

- 마이크로데이터의 국제적 접근을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 등을 시현하기 위해 OECD 내 생산성 측정, 부가가치 기준 무역, 기업가정신 등 경제 분야의 성공적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함

(5) 4b #29: 혁신적인 마이크로 데이터 접근 - 사례별 자료 비밀보호
(Innovative micro-data access - confidentiality on the fly)

- 호주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새로운 기술, 즉 원격분석 서버 및 사례별 자료 비밀보호(on the fly approach) 등에 대해 설명
 - 이용자들이 갈수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자료 공표 전 수행하는 단순 비밀보호 작업보다 더욱 유연한 방식이 필요
 - 따라서 ABS는 조사표 구축 및 자료분석 서비스 등 마이크로 데이터 접근을 위한 원격실행 환경을 구축
- 전통적인 비밀보호와 비교할 때, 새로운 기술은 원본 자료가 아닌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필요한 수정만 이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 모든 산출물은 '사례별' 비밀보안이 이루어져 자료의 세부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데이터 비밀보안이 보장됨

Decision 3 (어젠다 4) : Challenges in providing access to micro-data for research purpose

- ▶ 모든 통계조직에 있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핵심적 도전과제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특히 법적 프레임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다른 이용자 그룹으로의 새로운 자료 제공 방법 면에서 큰 진전을 보임
- ▶ 회원국은 다음 팔로우업 조치에 동의
 - ➔ (a)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와의 관계 유지 및 자료제공 과정의 투명성 개선과 관련한 통계기관간의 경험 공유
 - (b)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시스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체크 리스트” 작성
 - (c) 2007년 발간한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Managing Statistical Confidentiality and Micridata Access” 보고서의 성공사례 부문 업데이트
 - (d)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을 위한 위험 평가 프레임(a common risk assessment framework) 개발
 - (e) OECD의 Expert Group on micro-data access 활동에 기반하여 관련 용어를 정리한 전문용어집 작성
 - (f)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관련 메타데이터 기준과 아울러 품질 관리 및 측정에 관한 권고안 작성
 - (g) 혁신 솔루션 공유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HLG(통계생산 및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의 활동을 장려
- ▶ 회원국은 사무국 및 CES 의장단에게 동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팔로우업하도록 요청, CES 의장단은 차기 미팅에서 제안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함

(6) 5 #2a: HLG 보고서

(Report of the High-level Group on the modernisation of statistical production and services)

- HLG의 전략 이행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활동 및 거버넌스 등의 재정비를 제안
- CES는 HLG 활동과 관련하여 통계생산 및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 HLG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사업 이행을 위한 자원제공 등에 대해 논의
 - 국가통계청과 국제기구는 HLG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활동 이행을 위한 자원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승인

(7) 5 #2b: 공식통계에서 Big Data의 의미

(What does “Big data” mean for official statistics?)

- 국가통계기관은 연간 및 중기 사업계획에 공식적으로 빅데이터 이슈를 포함시키고,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
 - 일부 국가통계기관만이 빅데이터의 기술적 측면에서 활동중이며, 빅데이터 분석도구 및 솔루션 작업은 주로 민간에서 추진 중임
 - 공식통계에 빅데이터 분석도구 및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통계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함
 - 국가통계기관과 민간분야의 시너지는 기술적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정보보호, 신뢰, 기업 경쟁력 및 국가통계기관의 법적체계 등과도 연관
-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통계인에게는 다양한 마인드와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며, 분석적인 마인드, 프로그래밍 능력 등 IT에 친숙함 및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지식을 추출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됨

- 빅데이터 관련 통계인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통계기관이 단기 및 중기적 전문교육을 통해 분석능력을 배양해야 함
- HLG는 공식통계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작성해야 하며, 빅데이터와 관련한 향후 국가통계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
- 빅데이터 관련 향후 논의 계획
 - ISI 세계통계대회 세션 ('13. 8월)
 - 유럽통계시스템 회의(DGINS) ('13. 9월)
 - 빅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UNECE 워크숍 ('13년 말 또는 '14년 초)

Decision 4(어젠다 5): 통계생산과 서비스의 현대화

(Modernization of statistical production and services)

- ▶ 컨퍼런스는 HLG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함
- ▶ 회원국은 통계생산 및 서비스 현대화 부문에서 국제적 공조를 위한 우선순위 활동으로 다음 5가지를 제안
 - ➡ (a) 공식통계에서 빅데이터 사용을 위한 전략
 - (b) 법 및 라이선스 이슈
 - (c)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준에 기반한 현대화'를 보급
 - (d) 소프트웨어 공유(오픈소스 포함) 사례 축적
 - (e) 통계기준에 대한 Global Inventory 개발
- ▶ 국가 통계청과 국제기구는 HLG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제공을 승인함

(8) 6a #4: 지속가능 발전 측정에 관한 개념 프레임워크 및 지표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 conceptual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 '09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측정 추진반은 개념프레임워크 및 지표를 구축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

○ 지속가능발전 측정 프레임 : 영역 및 지표

① 주관적 웰빙(1) : 삶에 대한 만족도

② 소비 및 소득(5) : 최종소비지출, 공적개발지원(ODA),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소득 불평등, 성별임금격차

③ 영양 : 비만유병률

④ 보건 : 출생시 기대여명

⑤ 고용 : 고용률

⑥ 교육 : 취학률

⑦ 주택 : 주거빈곤 없는 삶

⑧ 여가 : 여가시간

⑨ 물리적 안전 : 강간치사 및 살인율

□ 토지 및 생태계 : 조류 지수

□ 물 : 식수 취수

□ 대기의 질 : 특정문제에 대한 도시의 노출

□ 기후 : GHG 배출

□ 에너지 자원 : 소비

□ 비에너지 자원 : 국내 물질소비

□ 신뢰 : 일반적 신뢰도

□ 제도 : 투표율

□ 물리적 자원 : 총자본형성

□ 지식 자원 : R&D 지출

□ 금융 자원 : 정부 부채

Decision 5 (어젠다 6a) :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 CES "recommendation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중 다음 문구를 개정
 - (a) “policy driver”로 명명된 지표를 ”policy relevant indicators”로 변경
 - (b) “non-energy resources”를 ”material resources”로 변경
- ▶ “A conceptual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향후 사업
 - (a) 지속가능 개발 측정 관련 UNECE/Eurostat/OECD 테스크포스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전략 보고 : 더 넓은 국제적 개념으로의 확장 방법 고려
 - (b)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지표에 대해 파일럿 테스트 실시 : 이탈리아와 호주가 자원함
 - (c) 지속가능개발 지표 세트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 개발
 - (d)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관련 indicators 및 목표(targets)를 연결
 - (e) 지속가능 개발 관련 분배적 측면 등의 국가간 영향력 측정

(9) 6b #5: 인적자본 측정에 관한 보고

(Measuring Human Capital - a stock-taking report)

- 인적자본측정 실적(stock-taking) 보고서는 인적자본 측정의 목적, 개념, 방법론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뉴질랜드*의 측정 관련 이슈 등을 설명
 - * 뉴질랜드를 의장으로 하는 전문가그룹은 '11년 6월 개최된 인적자본측정 세미나의 후속조치 및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
- 최근 인적자본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실험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 내재된 능력 및 역량을 다른 유형의 자산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인적자본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인구특성, 교육, 노동 시장 등)의 상대적 역할을 측정 가능케 함

- 인적자본의 화폐적 측정을 위해 비용 및 소득 기반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본 심층평가를 위해 실시된 조사에서 대부분 국가통계기관은 후자를 선호
 - 그러나 상기 두 접근방식은 상호 대안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 시스템 내에서 상호 보완해야 할 것으로 권고
- 향후 필요 작업으로 다음을 제안
 - 비용 및 소득기반 인적자본 추정치간의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
 - 인적자본 화폐적 추정치의 품질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와 관련한 사업 추진
 - 방법론 및 하위계정 구축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거쳐 인적자본에 대한 시범 하위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가그룹 설치
 - 인적자본의 비경제적이윤 측정 작업 추진

Decision 6 (어젠다 6b) : A stock-taking report on measuring human capital

- ▶ 인적자본 측정 실적 보고서 채택
- ▶ 인적자본 측정에 관한 Task Force의 ToR 승인

(10) 6c **#6**: 생활시간조사 : 정책연관성, 국제표준화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Time Use Surveys: policy relevanc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itiatives and new guidelines)

- 생활시간조사는 사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특히 무급업무, 웰빙 측정, 양성평등 세 가지 분야의 가장 효과적 자료원은 “생활시간조사”로, 이는 동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됨

- 각 국가의 생활시간조사 실시에 도움을 주고, 조사 결과의 국제비교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작성된 “생활시간조사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동 조사의 정책연관성 등을 논의
 - 상기 지침은 호주(의장),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Eurostat, OECD, UN 유럽경제위원회 및 영국의 생활시간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추진반에 의해 작성

Decision 7 (어젠다 6c) : Guidelines for harmonizing time use surveys

- ▶ 「생활시간조사」 테스크포스팀이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2013. 10월 CES 의장단회의 시 채택할 수 있도록 금번 토의내용 및 커멘트를 반영한 개정 draft 작성을 요청

(11) 7a #7: 빈곤통계 심층분석

(Outcome of the in-depth review of poverty statistics)

- 빈곤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Bureau는 ‘13년 OECD 및 CIS-STAT 공조 세미나 개최를 요청, ’13. 12. 2-4일 제네바에서 개최토록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세미나 개요를 논의하고 관련 의견 수렴

Decision 8 (어젠다 7a) : Poverty measurement

- ▶ 빈곤통계에 대한 심층 리뷰 결과를 채택
- ▶ “The way forward in poverty measurement” 세미나 개최를 지지하고, 향후 동 분야에 대한 고위급 세미나 조직 제안

(12) 7b #8: 금융, 보험 및 재무 통계의 심층분석

(In-depth review of banking, insurance and finance statistics)

- CES Bureau는 매년 개별 통계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년 11월 회의에서 금융, 보험 및 재무통계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를 의결하고, 금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함
- 재무통계 분야는 금융위기로 드러난 데이터 갭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이니셔티브” 시행 이후 원활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추가보다 의장단은 동 통계와 관련한 국가통계기관과 중앙은행간의 협력 강화를 주로 요구

(13) 7c #9: 고령화 통계 심층분석

(In-depth Review of Statistics Related to Population Ageing)

- '12년 6월 CES 본회의에서 논의된 고령화 통계 심층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문제점과 국제 및 국가차원의 통계활동, 향후 개선방안 등을 보완 작성함
- 의장단은 고령화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의 가용성, 접근성 및 비교성 향상 등을 위해 Task Force on Ageing-related Statistics에 대한 ToR (Terms of Reference)을 승인
- 추진반은 고령화지표 개발에 참여할 통계인, 정부 전문가 및 학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영국,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타지키스탄 및 미국 등이 참여

(14) 7d #10: 자원봉사 및 정치참여 등 공동체활동 통계 심층 분석

(In-depth review of the statistics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ther community activities, including volunteer work)

- 멕시코에서 작성한 “자원봉사 및 정치참여 등 공동체활동 통계” 보고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 분석을 통해 사회활동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짐
 - 이타적 행동 요인과 기부자 입장에서 개인의 웰빙 및 사회적 응집 효과 등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며, 자원봉사 활동의 정확한 측정은 SNA 하위계정 체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
 - '14년 4월 개최될 CES 세미나의 주제로 "사회봉사 및 정치참여 등 공동체 활동 통계“를 제안하고, 사회자본 및 웰빙과 연계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동 주제 검토를 요청

Decision 9 (어젠다 7b) : Outcomes of the in-depth reviews carried out by the CES Bureau : banking, insurance and financial statistics; population ageing; and political and other community activities, including volunteering

- ▶ 은행, 보험 및 금융통계, 고령화, 자원봉사 및 정치참여 등 공동체활동 통계에 대한 심층 리뷰 결과를 승인

4. 회의 관련 사이트

- <http://www.unece.org/stats/documents/2013.06.ces.html>

1. 개요

(1) 회의명

- 통계 생산 및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그룹 미팅
(**High-level group for the modernisation of statistical production and services**)

* UNECE가 주관하는 CES(유럽통계기관장회의) 산하 통계 생산과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체로, 8개 국가 통계청(한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멕시코)과 3개 국제기구(OECD, EUROSTAT, UNECE)로 구성

(2) 회의기간 및 장소

- '13. 6. 14 (금), 09:00~13:00 / 제네바 유엔본부

(3) 의장 : 호세 반 더 빈 (네덜란드 통계청장)

2. 회의 의제 및 프로그램

의 제	문서번호
▪ HLG 회의 아젠다	#15
▪ 6월 11일 CES 논의사항	-
* CES회의에서의 발표자료(Gosse)	CES2, 20
▪ HLG의 향후 역할 및 구성	-
▪ 4.19일 화상회의 결과요약	#14
▪ HLG 거버넌스	#12
▪ 표준위원회 ToR	#16
▪ 향후 자금지원 방법	Discussion Note
▪ HLG 프로젝트 업데이트	#17
▪ 빅데이터-HLG의 역할	#18
▪ Licensing Issues	#19
▪ MSIS 2013 국제회의 결과 요약	#20
▪ METIS 2013 국제회의 요약	#21
▪ 기타 논의사항	-

3. 주요 논의 내용

(1) CES에서 HLG 활동 보고

- CES에서 HLG의 주요 활동 보고('13.6.11, 네덜란드 통계청장)시 지적된 국제적 공조를 위한 우선사항*은 차기 HLG 세미나('13.11월, 제네바)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 - 공식통계에서 빅데이터 사용을 위한 전략
- 라이선스 이슈
- '기준에 기반한 현대화'를 보급시키기 위해, GSIM, GSBPM 등 기준을 실제 통계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집 발간
- 소프트웨어 공유(오픈소스 포함) 사례 축적
- 통계기준에 대한 Global Inventory 개발

(2) HLG의 향후 역할 및 구성

- 슬로베니아 통계청장(Irena Krizman)의 퇴임으로 HLG에 새로 참여하게 된 캐나다 통계청장(Wayne Smith)을 환영함
- 기존 회원의 퇴임시 교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원자격은 개인 자격이 원칙이지만, 지역별 안배 및 연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
- HLG는 현재 10명의 멤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사무국은 11월 회의에서 멤버십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초안을 제출할 예정

(3) HLG 거버넌스 (#12)

- HLG 거버넌스 정립과 관련하여,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의 지위를 HLG와 현대화위원회 사이에 두도록 결정함
- 집행이사회는 4개 현대화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받고 자문·조정함
- 각국 통계청에서 혁신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통계청장)로 구성
- 다층적인 보고과정의 비효율성이 함께 거론되었으나, 일단 1년간 시행 후 재논의하는 조건으로 결정됨

(4) 표준위원회 ToR(#16)

- 표준 위원회 ToR이 타 위원회 및 집행이사회 승인을 위해 견본으로 제시되었음
 -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그룹(10명 ~ 12명)과 정보제공을 위한 그룹으로 구분
 - 정기회의 및 주요 의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1년에 두 번 주요 이슈 및 결과, 외부활동 등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제출

(5) 향후 자금지원방법

- '14년 이후 HLG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연간 최소 \$200,000)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 결과, 당분간 현 멤버들이 매년 \$29,999씩 납부하는 방식에 합의
 - UNECE 대표(HLG사무국)는 \$30,000 미만의 기부금은 UN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편함을 고려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그 이상도 가능함을 설명

(6) HLG 프로젝트 업데이트 (#17)

- Thérèse Lalor(프로젝트 매니저, UNECE) 등은 최근 로마에서 개최된 두 번째 스프린트 세션 “Common Statistical Production Architecture”에 대해 보고함
 - 스프린트는 PoC(Proof of Concept)*를 위해 필요한 디자인 정보를 생산
 - * PoC(Proof of Concept) : 본격적 시스템 개발에 앞서 기술적 실현가능 여부를 검증해 보는 것
 - HLG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준이 제안된 아키텍처에 완전히 부합해야하며, 기타 생산물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

○ Steven Vale은 “Frameworks and Standards for Statistical Modernisation” 진행상황을 보고

- 최근 GSIM과 GSBPM에 대한 검토를 시작, 지리정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테스크팀이 6월에 출범
 - Task팀은 현재 GSIM의 이행 및 GSIM과 SDMX, DDI 매핑 작업을 진행
 - '지리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관련, 기존 글로벌 전문가 그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UN 글로벌 지리정보 Management와의 공조 모색
- * 예정대로 E. Sojo(멕시코 통계청장)이 UN Management의 부의장을 맡는다면 HLG와 UN의 공조가 용이해질 것임

(7) 빅데이터 (#18)

○ Steven Vale은 2013 MSIS 회의에서 빅데이터 테스크 팀을 구성하였음을 보고

- 동 테스크팀은 빅데이터 영역의 국제공조, 빅데이터의 유형 분류 및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예시, 통계기구의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제안
- 일부 회원들은 빅데이터 관련 진행상황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에 동의,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14년 유엔통계위원회에 빅데이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 예정

(8) Licensing Issues (#19)

○ 캐나다 통계청장(Wayne Smith)은 소프트웨어 공조 및 공유 (Collaboration and Sharing)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이 분야는 향후 프로젝트 중 우선과제로 선정될 수 있으며, HLG는 단기적으로 캐나다의 보고서 및 다른 국제기구의 유사한 보고서를 HLG wiki에

게재하는데 동의

(9) MSIS 및 METIS 기타 논의 사항 (#20-#21)

- Steven Vale은 최근 MSIS 및 METIS 회의의 결과를 요약보고하고, HLG는 통합된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

(10) 향후 계획

○ HLG 사무국

- 교육자료를 포함한 표준화를 위한 기록 및 promote success stories 메커니즘 개발
- HLG 회원자격의 원칙 및 기준에 관한 초안
- HLG wiki에 소프트웨어 공조를 위한 보고서 게재 및 관련 기구에서 유사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독려

○ UNECE 사무국

- HLG의 결정을 반영한 위원회의 ToR 초안 준비
- 원활한 기부를 위해 필요한 협약 형식 준비
- 2014년 이후를 위한 예산안 준비

○ 기타 프로젝트

- 제안된 아키텍처에 완전히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 (담당 : CSPA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매니저)
- 빅데이터의 국제공조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준비 및 회람 (담당 : 빅데이터 테스트팀 및 UNECE 사무국)
- 통합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향후 작업 (담당 : METIS 및 표준화위원회)

<참가국 및 회원 리스트>

1. Mr Gosse van der Veen, 네덜란드 (의장)
2. Mr Brian Pink, 호주
3. Mr Wayne Smith, 캐나다
4. Mr Emanuele Baldacci, 이탈리아
5. Ms Marina Gandolfo, 이탈리아
6. Mr Park, Hyungsoo, 한국
7. Ms Ahn, Jungim, 한국
8. Mr Alberto Ortega, 멕시코
9. Mr Daniel Defays, Eurostat
10. Mr Trevor Fletcher, OECD
11. Mr Paul Schreyer, OECD
12. Ms Lidia Bratanova, UNECE

※ 옵저버 : Mr Marton Vuksan, Netherlands,

UNECE 사무국 : Mr Steven Vale, Ms Alice Kovarikova, Mr Justus Beekmans

